

진로체험 참여 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요인

문인오·이선영[†]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on Nurse's Image and Career Identity of High-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Job Experience

Moon Inn Oh·Lee Sun Young[†]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age of nurse and career ident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 vocational experience program of a nursing department, to find influential factors, and ultimately, to improve the image of nurse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career identity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career and to obtain strateg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nursing departments' vocational experience program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 report questionnaire from 90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 vocational experience program executed at the Nursing Department of W University in G Province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26 to July 19 in 2014.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es, factors influencing the image of nurse were career identity($\beta=0.339$, $p=0.002$)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beta=0.153$, $p=0.043$) in order of significance($F=9.51$, $p<0.001$), and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ty were the image of nurse($\beta=0.301$, $p=0.002$),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beta=0.254$, $p=0.010$), and gender($\beta=0.231$, $p=0.015$) in order of significance($F= 12.06$, $p<0.001$).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 vocational experience program of a nursing department a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 program i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image of nurse and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career

접수일 : 2015년 11월 23일, 수정일 : 2016년 1월 30일, 채택일 : 2016년 4월 8일

교신저자 : 이선영(54538,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

Tel: 063-840-1310 Fax: 063-840-1319 E-mail: cesko@naver.com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dentity. Based on this study,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get strateg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various vocational experience programs, to provide high school students with voca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nursing through the program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uch programs.

Key words: Identity, Image, Job, Nurse,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Super(1953)가 제시한 진로발달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에서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며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긍정적인 직업이미지에 일치하는 직업을 찾는다(임은경, 1997).

진로발달에 있어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은 유아기에서부터 형성(formation), 전환(translation), 실천(implement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사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되고 보완된다(김향중과 김경애, 2003). 그러나 청소년기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자아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김지영, 2015). 따라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정신적 성숙,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 준비 등 진로 발달 단계 중 탐색기로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장지선, 2004).

청소년기는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기이며(오은연, 2014), 다양한 진로정보를 습득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무엇보다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보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미애 등, 2011). 진로 탐색은 진로발달 요인을 기초로 인간의 능력, 흥미, 성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 특정 직업들에 대한 적합성과 각 직업들에서 각기 요구되는 일정 범위의 능력, 흥미, 인성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유순화, 2001).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대한 만족은 얼마나 자기의 능력, 흥미, 성격특성,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의 성숙과 탐색적 경험에 달려 있다(김향중과 김경애, 2003). 나아가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탐색이 가능하며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 있는 집단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김사라형선, 2013),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진로결정문제와 학교현장적응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김희수와 박경애, 2001).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중요한 과업인 진로 정체감은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진로체험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진로 결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점숙, 2014).

청소년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Kalisch BJ 등, 2007) 간호사 이미지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변화될 수 있으며(노지영 등, 2012),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는 향후 대학생들과 임상,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오덕자 등, 2005).

청소년기에 지각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로 정체감은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간호직이라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에 있어 명

확한 확신을 주며(문인오와 이경완, 2010),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하는 진로 정체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자기 확신과 관련이 깊다(Holland JL 등, 1980).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는 궁극적으로 간호직 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조희와 이규영, 2006).

그러므로 오늘날 높아져가는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학과 진로체험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의 긍정적인 지각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하윤주 등, 201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로는 고등학생들에서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주관성(윤은자 등, 2010),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김경혜 등, 2012)와 초, 중,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 이미지(김유미와 강영실, 2013)등의 주로 간호사 이미지 유형에 관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 단계와 진로성숙의 영향(조세연과 김기찬, 2014), 가족기능, 자아 정체감, 진로 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이미애 등, 2011), 진로 정체감과 성취목적의 구조적 모델(임선아, 2013), 고등학생의 진로 정체감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자아 정체감의 영향(김중운과 최미숙, 2011)등이 있으나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진로 정체감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진로 정체감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임선아, 2013)와 Holland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간호학과 진로체험 관련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간호학과 진로체험 관련 간호사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관련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희망을 원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alpha=0.05$, $\text{power}(1-\beta)=0.80$, $\text{effect size}=0.025$ 로 회귀분석에 투입할 독립변수의 수를 최대 4개 정도로 감안하여 R^2 의 유의성을 보고자 할 때 필요한 사례수 85명을 근거로 연구 참가자들의 탈락률, 회수율 및 응답 누락 등을 고려하여 95명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는 총 90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간호사 이미지

강혜영 등(2003)이 간호사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문항은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간호직 전망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측정된 점수가 더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역산하였고 나머지는 긍정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94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50$ 이었다.

2) 진로 정체감

Holland JL 등(1980)의 진로 정체감 척도, 전운식 등(1988)이 사용한 자아 정체감 검사를 박아청(1984)이 개편한 검사를 참고로 하여 진로관련 문항으로 김혜영(2011)이 재구성한 것으로 본 검사의 하위척도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등 5가지 하위요인 각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항목에 대한 응답을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측정된 점수가 더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이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재구성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918$ 이었다.

4.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에 근거한 성격특성, 가치관에 부합하는 특정 직업 군에 요구되는 일정 범위의 이론 이해능력, 실무 흥미경험, 성취완성, 정서적 이완을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자기효능 전략을 활용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간호학과 전임교수 5인이 구성된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 집단학습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호이론과 간호실무활동을 각 중심 분야별로 간호학과 교수의 협력 하에 공동으로 운영되는 통합프로그램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간호이론과 간호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집단학습으로 구성하였다.

구성은 크게 두 개의 파트, 총 3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파트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진로체험의 이론부분으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간호사의 역할, 졸업 후 진로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주입식 강의가 아닌 간호학과 전공 교수의 동영상과 학교소개, 동아리소개, 선진병원체험, 해외 인턴쉽, 어학연수관련 PPT 등 다양한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파트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간호 체험과 기본간호학 실습실에서 활력징후, 신체사정, 정맥주사요법 등의 내용으로 환

자 간호를 참가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져 있다.

5. 자료 수집 방법

2014년 4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먼저 J도의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학과 진로체험에 관한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결정은 고등학교 공지사향과 각 담임선생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 한해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과정 동안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이었고, 설문 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이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95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90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간호사 이미지, 진로 정체감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진로 정체감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고,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가정조건을 검정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진로체험에 관한 영향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와 진로정체감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3명(25.6%)보다 여성이 67명(74.4%) 많았고, 참여 동기는 진로탐색인 경우 23명(25.6%), 직업체험인 경우 67명(74.4%)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경우 8명(8.9%)보다 없는 경우 82명(91.1%)가 많았고,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 19명(21.1%), 없는 경우 71명(78.9%)으로 나타났다. 추후 학과의향이 있는 경우 86명(95.6%)가 없는 경우 4명(4.4%)보다 많았고, 교육에 만족한 경우 69명(76.6%)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 21명(23.4%)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교육 만족($t=2.810$, $p=0.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에 만족한 경우(88.89 ± 8.47)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83.42 ± 10.43)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

았다. 성별, 참여 동기,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추후 학과의향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3.240, p=0.002$), 교육 만족($t=4.044, p=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09.52 ± 6.62)이 여성(103.45 ± 8.10)

보다 진로정체감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육에 만족한 경우(106.66 ± 7.93)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98.79 ± 5.71)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참여 동기,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추후 학과의향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Nurse's Image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tudents	Nurse's Image		Career Identity	
		n(%)	M±SD	t/f(p)	M±SD	t/f(p)
Gender	Male	23(25.6)	90.30±6.80	1.283(0.205)	103.45±8.10	3.240(0.002)
	Female	67(74.4)	87.91±9.91		109.52±6.62	
Participation Motivation	Career Search	23(25.6)	89.61±10.21	0.651(0.517)	104.70±8.39	0.971(0.837)
	Work Experience	67(74.4)	88.15±8.94		105.10±8.14	
Programme Experience	Yes	8(8.9)	87.50±10.02	-0.326(0.745)	106.00±13.44	0.227(0.826)
	No	82(91.1)	88.62±9.22		104.90±7.57	
Nurse among Family	Yes	19(21.1)	88.11±10.01	-0.220(0.826)	105.84±6.37	0.504(0.615)
	No	71(78.9)	88.63±9.10		104.77±8.60	
Study Intention	Yes	86(95.6)	88.71±9.20	0.889(0.376)	104.80±8.26	-1.066(0.289)
	No	4(4.4)	84.50±10.63		109.25±3.77	
Programme Satisfaction	Yes	69(76.6)	88.89±8.47	2.810(0.006)	106.66±7.93	4.044(0.000)
	No	21(23.4)	83.42±10.43		98.79±5.71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4.42±0.42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전문적 이미지 4.23±0.51점, 전통적 이미지 4.12±0.63점, 간호직의 전망 이미

지 4.07±0.63점, 사회적 이미지 4.04±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5점 만점에 3.85±.048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목표지향성 4.44±0.55점, 독특성 4.34±0.54점, 자기주장 3.95±0.56점, 안정성 3.93±0.57점, 자기존재의식 3.75±0.71순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the Nurse's Image and Career Identity

Vaviales	Range	M±SD
Nurse Image	2.95~5.00	4.42±.42
Professional image	2.83~5.00	4.23±.51
Traditional image	2.67~5.00	4.12±.63
Vision of Nursing image	2.00~5.00	4.07±.63
Social image	2.60~5.00	4.04±.61

Vaviales	Range	M±SD
Career Identity	2.60~4.87	3.85±.48
Safety	2.67~5.00	3.93±.57
Goal Orientation	2.67~5.00	4.44±.55
Specificity	3.00~5.00	4.34±.54
Self Assertion	2.67~5.00	3.95±.56
Ego identity	1.83~5.00	3.75±.71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

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진로정체감($r=0.400$,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Nurse Image and Carrer Identigy

	Nurse's Image	Career Identity
	r(p)	r(p)
Nurse's Image r(p)	1	
Career Identity r(p)	0.400(0.000)	1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진로 정체감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교육만족을 회귀분석식에 투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명목적도인 교육만족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945으로 검정통계량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

가 0.843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86으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Linearity),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51$,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161로 설명력은 16.1%이었다. 간호사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정체감($\beta=0.339$, $p=0.002$)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만족($\beta=-0.153$, $p=0.043$)이었다(Table 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s of Nurse's Image

Variables	B	SE	β	t	p	AdjR ²	F	p
Constant	48.87	12.82		3.81	0.016	0.0161	9.51	<.001
Programe Satisfaction	-3.440	2.38	-0.153	-1.443	0.043			
Career Identity	0.384	0.120	0.339	3.209	0.002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간호사 이미지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성별, 교육만족을 회귀분석식에 투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명목 척도인 성별과 교육만족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검증에서는 Durbin-Watson통계량이 1.800으로 검증통계량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가 0.874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86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Linearity),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크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2.06,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0.272로 설명력은 27.2%이었다. 진로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간호사 이미지($\beta=0.301$, p=0.002)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만족($\beta=-0.254$, p=0.010)이고 성별($\beta=-0.231$, p=0.015)이었다(Table 5).

<Table 5>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s of Carrer Identity

Variables	B	SE	β	t	p	AdjR ²	F	p
Constant	85.78	7.69		11.14	<0.001	0.272	12.06	<0.001
Gender	-4.30	1.73	-0.231	-2.478	0.015			
Programe Satisfaction	-5.05	1.92	-0.254	-2.624	0.010			
Nurse Image	0.265	0.083	0.301	3.180	0.002			

IV.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간호학과 진로체험 관련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한 대상자가 만족

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후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김경혜 등, 2012)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이 고등학생들에게 간호사의 이미지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간호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구성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에서의 진로정체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미에 등, 2011)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관한 전체적인 진로정체감에 대해 조사한 연구와 간호 관련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간호란 역사적으로 모성의 역할이 포함되어있어서(오은연, 2014) 여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한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조세연과 김기찬, 2014)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42점으로 각 영역별 평균은 전문적 이미지(4.23점)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이미지(4.04점)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성지아 등, 2014)와 일치된 결과로 최근 전문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도출하려는 전문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가장 낮은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사회적 이미지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야하며 사회성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변화와 대체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각 영역별 평균은 목표지향성(4.44점)이 가장 높았고 자기존재의식(3.75점)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선행연구(김종운과 최미숙, 2011)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목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이미지가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실제 제한되고 있는 자기존재의식은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하여 간호대학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등을 활용한 대안적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

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적 자아개념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성지아 등, 2014)에서 전문적 자아개념에 진로 정체감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긍정적인 간호직에 대한 이미지가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은 선행연구(정점숙 등, 2014)의 결과에서 전공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련 변인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향이 간호사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진로 정체감이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거라고 생각된다. 간호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인 중 사회성이 낮으므로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안에 병원간호사 방문을 포함하여 더욱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프로그램 만족은 선행연구(임선아, 2013)의 결과에서 프로그램에 만족할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만 간호학과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직업체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V.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고등학생의 간호학과 진로체험관련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은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할수록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만족스러운 진로체험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이 긍정적이었음을 볼

때 간호학과 내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경험이므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충분한 환경이 갖추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학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의 일부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흥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간호사의 독자적 역할을 넓혀나가기 위해 간호교육의 교과과정 속에서 확대된 간호사 역할을 교육하고 보여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간호의 본질을 올바르게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하며 간호사의 이미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강혜영, 김미선, 김정효, 김혜숙, 박미화, 박영주, 송남효, 이난희, 전효경.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대한간호학회지 2003;9(3):379~387.
2. 김경혜, 김아영, 김진영, 마정화, 백숙영, 이창경, 원자연, 허유진. 고등학생이 인지한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2012;4(6):27-38.
3. 김유미, 강영실.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3;19(3):384-395.
4. 김종운, 최미숙.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연구지 2011;30(3):175-196.
5. 김지영.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직업교육연구 2015;34(2):75-108.
6. 김사라형선.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아동학회지 2013;34(5):43-59.
7. 김향중, 김경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2003;12(-):27-58.
8. 김희수, 박경애.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문제 해결적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2001;2(2):231-250.
9. 김혜영. 직업체험활동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10. 노지영, 박수진, 배두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2012;18(2):88-94.
11.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0;16(1):83-91.
12. 박아청. 자아아이덴티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 연구 1984;22(2):83-98.
13. 성지아, 염은이, 도영숙.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14(11):798-809.
14.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5;11(1):64-72.
15. 오은연.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16. 이미애, 최명숙, 최성열.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자아정체감, 심리적 독립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지 2011;25(4):

- 739-761.
17. 임선아. 진로정체감이 성취목표, 몰입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지 2013;20(1):47-68.
 18. 임은경. 진로상담을 위한 Super와 Holland 이론의 통합. 한국진로상담학회지 1997;2(1):87-107.
 19. 유순화. 고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나타나는 성차에 관한 사회인지적 분석. 한국상담학회 2001;2(1):77-94.
 20. 윤은자, 한상영, 이인자. 청소년의 간호이미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주관성연구지 2010;21:179-194.
 21. 장지선.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22. 전윤식, 이성혜, 정영홍, 박선자, 김상구. 부산대학교 신입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988;24(1):1-44.
 23.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4;20(1):27-36.
 24. 조세연, 김기찬.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지 2014;21(9):325-349.
 25. 조희, 이규영.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6;20(2):163-173.
 26. 하윤주, 민순, 김은아. 간호대학생의 자아상과 간호사 이미지 지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3;19(3):405-412.
 27. Holland JL, Gottfredson DC, Power PG.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39:1191-1200.
 28. Kalisch BJ, Begeny S, Neumann S.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2007;55(4):182-188.
 29. Super DE.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1953;8:185-190.